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서울캠퍼스(우 :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
☎(961)0095, (963)5849
FAX(962) 7718
수원캠퍼스(우 : 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 1
☎(745)5702(교환:2056·2860)
직통 (0331)280-2056·2860
FAX (0331)281-6378

발행편집인 조영식
주간 이석우
편집장 이준희
인쇄인 김준배

제1028호 〈주간〉 1993년 9월 13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등록번호 나-12) (1955년 5월 12일 창간) 【1】

발전기금 모금운동 전개

동문중심 후원회 결성, 1백억원 조성 목표

3일간 2억5천만원 모금돼

'경희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후원회'(이하 후원회)는 기금 총액 1백억원을 목표로 지난 7일부터 본교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했으며 지난 9일까지 3일간 약 2억 5천만원의 기금이 모금됐다. (발전기금 출연자명단 4면)

개교 50주년이 되는 99년이 전까지 5년동안 전개할 이번 모금운동을 담당하게될 후원회는 지난 4월 '개교 45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거교적인 차원의 발전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자'는 의견이 제안된 이후 계속적으로 그 조직과 사업계획등의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오후 6시 타워호텔에서 열린 총 동창회 회장단회의시 후원회 임원진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본격적인 발전기금 모금활동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번에 결성된 후원회는 본교 총 동창회장인 이병희(정외·7회)동문을 회장으로 재단이사, 본교 학처장, 각급 기관장, 학부모등 총 1천3백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병희 후원회 회장은 "모교에서 개교 45주년과 1999년의 50주년을 대비하기위해 다양한 형식와 학교발전을 위한 많은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미력이나마 모교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후원회를 결성해 모교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고 후원회 구성 및 발전기금 모금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본교 발전기금 모금운동에는 본교 동문은 물론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 본교에 관심은 가진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금은 일시불 또는 분할 출연이 가능하다.

또한 유가증권 부동산 등 기타 자산의 출연도 가능하며 기금출연에 따른 세제상 혜택을 위해 기금 출연시 본교에서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후원회 추진 공동위원장과 회장을 겸하고 있는 박기서(문리대 사학)교수는 "이번 후원회 결성과 발전기금 모금운동은 경희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뿐만 아니라 8만여 동문을 비롯한 모든 경희가족을 묶어주는 하나의 매개가 될것"이라고 밝히고 "액수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작은 정성이지만 모든 경희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신방대학원장 이광재교수

본교 신문방송대학원장에 이광재(경영대 신문방송학)교수가 임명되었다.

이규종(정경대 정치외교학) 교수가 지난 8월31일 정년퇴임함으로써 그 후임으로 이교수가 9월1일부로 신방대학원장을 맡게 된 것이다. 이교수는 출판국장도 겸하게 된다.

약대생도 수업거부 한약 분쟁악화

약사법 개정시안 철회할 것 주장

본교를 비롯한 전국 16개 약학대학 학생들이 수업거부에 돌입함으로써 6개월간 지속되어온 '한약분쟁'이 약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본교 약대생들은 지난 3일 발표된 보사부의 약사법 개정시안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6일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약대생들은 "보사부의 개정시안은 현실적 대안이 전혀 없는 졸속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한방의약분업의 조속한 실시 ▲약대생이 한약취급능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을 보사부에 촉구했다.

본교 약대와 한의대 학생회는 이번 사태가 한의사와 약사의 이권다툼이라는 여론과 관련해 "국민건강권의 대의를 위해 한의대생과 약대생이 한께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을 보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학수호 결의대회'가 본교를 비롯한 11개 대학 한의과교수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본교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한의대생의 유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의대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한의학이 민족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또한 교수들은 결의문을 통해 ▲약사의 한약조제 즉각 철회 ▲한방의료보험 실시 ▲한의학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한의대생들의 수업복귀 등을 촉구했다.

〈보사부 개정시안과 양측주장 비교〉

	보사부안	한의대	약대
의약분업	· 96년 양방의약 분업실시 · 한방은 5-7년 유예기간	· 한약은 의약일체 이므로 불가	· 즉각실시
한약조제권	· 기존 한약취급약사 50-1백종 한약조제허용 · 신규 약사금지 · 한방의 · 약분업후 한의사처방없는 한약조제금지	· 한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의관리사 양성	· 약사에게
협약의료보험	언급없음	실시찬성	실시찬성

서병희 전교수 선고유예 판결

AIDS법 위반 입건, 사퇴서 제출

지난 2일 AIDS법 위반으로 입건된 본교 전 서병희(의과대·의학과)교수가 지난 1일 서울 북부지원 형사재판소에서 열린 제3차공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서 담당판사는 "서교수의 의료법 위반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간 교수로서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적을 참작"하고 "이 사건이 서교수가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재단과의 마찰에 의해 야기된 학내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점"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하였다.

선고가 있기 전 서 전교수는 지난 7월 31일 부교수직 사퇴서를 학교측에 제출해 수리되었다.

재단측은 8월3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서 전교수의 징계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서 전교수의 사퇴서제출로 소집을 취소하였다.

한편 서 전교수 사퇴와 관련해 의대 학생회장은 "서교수님의 뜻을 존중하며 앞으로 학내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교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기간 복정사고 없이 경과하면 그 죄를 사하여 주는 선교이다.

수원 진입로공사 학교·학생 이견

공대운동장 사용여부 문제점

경희의 얼굴을 만들고, 경희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고른 및 진입로 확장공사에 학교측과 학생측의 계획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학생측은 방학중에 학자추산하에 '교문 및 대학론화거리 건설을 위한 계획설계팀'을 조직하여 4가지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 4가지안 중 학생측은 벗나무선 좌측 공대운동장쪽으로 4차선도로를 신업대 앞까지 직선으로 건설하는 제1안을 채택하였고, 학교측은 벗나무 양쪽으로 4차선도로를 내는 학생측의 제4안과 유사한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내놓은 제1안을 살펴보면 벗나무선 좌측 4차선도로 건설에서 중앙에 15m를 도보공간으로 하고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며, 우측으로 노천소극장을 건설하여 문화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계획의 문제점은 공사후 공대운동장과 필드하키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대안으로 학생측은 공사 후에도 일반학생들은 공대운동장에서 교양체육수업이 가능하며 하키선수들의 연습을 위해 자연대 뒤 종합운동장에 하키전용구장의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벗나무 좌측으로 36m의 도로건설과 7m의 녹지대를 건설하면 공대운동장의 사용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학생측 대안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학생측은 학교당국에 공사 진행의 중지를 요구한 상태이다.

6공 정치수배 해제 요구 '수자모'결성

투쟁기금 마련위해 17일 일일주점

6공화국 정치수배자의 수배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10일 우리학교를 비롯해 외대 전남대 등 전국 10여개 학교에서 '수배자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모임(수자모)'를 구성, 활동을 벌이고 있다.

수자모는 ▲6공정치수배의 일괄해제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본교생 1천7백여명이 서명에 참가했다.

현재 우리학교에서는 92년 총학생회장 박홍근(국문·4)군과 현총학생회장 천준호(사학·4)군, 베틀린에 체류중인 박성희(작곡·4)양이 수배상태로 있다.

수자모에서는 또한 '6공 정치수배 일괄해제를 위한 하루주점'을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마로니에호프(옛 마니분식)에서 갖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연세대 학생회관 수배자들에게 보낼 생필품구입과 수배자들을 위한 성금, 수배해제를 위한 투쟁기금으로 쓰여진다.

사회과학(연) 토론회 개최

'외교정책의 변화'주제로

본교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신정현교수)는 등 연구소 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찬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18일 오전 7시 힐튼호텔 그랜드볼룸 A실에서 개최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한승주 외무부장관이 참석, '국제환경 변화와 한국 외교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과학연구소는 학제간 연구와 토론토론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과학연구소 수요포럼'을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정경대 세미나실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수요포럼'은 매주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며 오는 15일에는 강태원(정경대·신방)교수의 '언론사 연구에서의 비교방법'이 22일에는 권태영(문리대·영문)교수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문학'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사 령

이준희(철학·3)
任 편집장
오홍섭(임학·4) 임기만료
免편집장

이상 9월13일자

대학주보사

社 告

"모든 바람은 대학주보로부터"

대학주보 42기 수습기자 모집

오는 15일 원서접수 마감

진실에 대해 순수한 열정으로 대학문화를 선도해가는 대학주보가 현실과 역사를 가르며 날카로운 필봉을 드높일 대학의 지성을 찾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시대를 기록하고자 하는 지성은 지금 곧 대학주보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인원:서울·수원캠퍼스 ○○명
▲모집부문:일반기자·컷(만화)기자·사진기자
▲선발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9월1일부터 15일까지
나. 전형일자:9월 15일 오후 5시 양캠퍼스 편집실
다.전형방법:면접
▲원서교부 및 접수처:본사 편집실
▲제출서류:응시원서(양사 소정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편집실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 구내 0095, 수원 구내 2056

대 학 주 보 사

수원전산소 LAN강습회

수원캠퍼스 전자계산소는 오는 16일, 17일, 23일, 24일 등 네차례에 걸쳐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전자계산소 컴퓨터실(공대 107호)에서 Lan강습회를 갖는다.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는 이번 강습회는 학내에 Lan이 모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학생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앞으로 학생들의 활발한 Lan활용을 위해 마련되었다.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전산교육 지원실에 신청을 하면 되고 수강료는 교재비를 포함해 2만원이다.

수원 14일 자치회비 배분

수원캠퍼스 총대의원회는 오는 14일 오후7시 총학생회 회의실에서 2학기 자치회비를 배분한다. 자치회비 배분은 사용내분의 원칙을 세우고 이번주 중에 마무리될 1학기 감사내용을 바탕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한편 대의원회는 94학년도 자치회비 인상을 위해 현재 각학교의 자치회비 금액등의 조사작업을 진행중이며 내년도 자치회비 인상에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경희학원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에 즈음하여

"21세기를 준비하는 경희의 힘찬 발걸음"

우리 경희인들은
개교 45주년을 맞이하며 남다른 감회에 젖습니다.
그것은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아래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붉되진의 경희정신 하나만으로
반세기의 짧은 역사에도
오늘의 경희를 이룩해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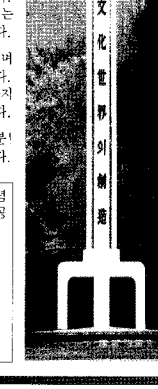
오늘의 경희를 가르켜 해외언론에서는
'극동 교육사의 기적'이라 극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21세기의 위대한 경희를 그리며
'제 2의 웅비'를 준비할 것입니다.
개교 50주년이 되는 1999년까지
경희발전을 위해 100억원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경희가족 여러분!
하나의 벽돌이 되어 경희의 명예를 지킵시다.

경희 발전의 최기적 전환점이 될 개교 50주년 기념사업기금과 경희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강당 완공을 위한 모교 발전 기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경희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 010-01 0618-642
신탁은행 : 17301-2710-209
농 협 : 031-01-396711
우 체 국 : 012336-0025556
(예금주는 각 계좌별 공히 "경희대학교"입니다.)



◇명예고문
인촌김성수 동암김연수 대석김병우 초당은 만결송 차정일

◇고 문
안재홍 김활란 박광현 하두일 김일성 김정일 홍종인

◇회 장 : 이병희

◇부 회 장
이승우 성주스 최종태 박문도 백이식 김관선 손홍기 김용대 김재성 김재덕 김재일 김재홍 김재희 김재선 김재식 김재웅 김재원 김재학 김재홍 김재홍 김재수 김재홍 김재홍 김재홍